



St. Peter Invited to Walk on the Water, Francois Boucher,
Cathedrale Saint Louis, Versailles, France.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마태 14,30)

■ 미사전례

- 제 1독서: 열왕 19,9-11-13
-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독서: 로마 9,1-5
- 복음 환호송: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음: 마태 14,22-33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리시라.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허전하다.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는 삶의 위기는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큰 어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삶의 무의미함에 힘들어하고,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힘들어 한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창세기의 계시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다.(창세 1,26 참조) 하느님이 창조주인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창조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섭리해 놓으셨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목욕을 1년 동안 하지 않은 노숙자다. 욕체에선 비누향이 날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썩은 때가 덕지덕지하다. 욕체의 때는 매일 씻어내면서도 정작 마음의 때는 닦아내지 않고 있다. 방법을 몰라서다.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II’는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약 2년 전 가톨릭신문에 연재했던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I’이 이론적인 모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톨릭 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영성’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영성은 단순하다.

삶의 모든 것이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 설거지 하는 것도, 테니스 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모두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고통도, 우울한 감정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도 모두 영성적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다. 심지어 숨 쉬는 것 하나도 영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영성생활을 할 수 없다. 강아지는 반모임에 나가거나, 레지오 마리아 회합을 할 수 없다. 소나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소나무 모임이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미들이 줄줄이 몰려다니는 것은 자연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영성생활을 하지 못한다. 인간만이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성당을 만든다. 저 높이신 영적 존재와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를 한다. 십자가의 길 기도도 바치고 묵주기도도 한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있다.

이는 인간이 육체와 정신,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다. 영의 기능은 단순하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닌 초월적인 그 분의 뜻에 맞게 살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영이 한 일이다. 더 높은 뜻,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영이 부추긴 탓이다. 하느님의 계획을 쫓는 힘이 영이다.

그 영의 부추김을 일상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영성생활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볼 일이 아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문제는 이 영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데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에만 의존하고 영은 잊고 산다. 테니스를 칠 때도, 수영을 할 때도 우리는 육체와 정신에만 의존한다. 테니스도, 수영도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설거지도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노동도 영적으로 할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한다. “너는 재능이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하니”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성적이 이러니”...

정작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충만하게 부여받은 넘치는 영성적 자질을 묵혀두고 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고통스러워” “삶은 힘들어”한다. 마치 학생이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생활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앙인들은 왜 영성 생활을 어렵게 느낄까. 왜 “영성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가톨릭신문 제2750호 (2011년 6월 12일) - 정영식 신부 (효명고등학교 교장)>

성삼 소식

☞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Check 우편발송
 - Payable to: SSKCC
 - 주소: 1230 N. San Fernando Rd. LA, CA 90065
2. 은행자동이체
 - 은행이름: Bank of Hope
 - 예금주: Sung Sam Korean Catholic Center
 - Routing #122041235 / Account#0007316194

☞ YouTube 생방송 미사

- 일시: 8월 9일(주일) 10:00 영어미사
- 검색이름: 성삼 한인 천주교회(Sungsam KCC)

☞ 성당 및 사무실 방문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보안 안전을 위해 성당 게이트(주차장)는 **평일 미사 1시간 전**에 열겠습니다.
- 사무실에 용무가 있으신 분은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업무시간
 - 수요일~금요일: 오전9:00~오후5:00
 - 토요일: 오후1:00~오후7:00
 - 일요일: 오전7:30~오후3:00
- 사무실 전화번호 : ☎323-221-8874

☞ LA 교구 사제 서품식 미사

- 일시: 8월 8일(토) 오전 9:00
- 장소: LA교구 주교좌 성당
- 서품식 생방송: lacatholics.org/ordination.

우리들의 정성 (2020. 8. 2 현재)

교 무 금	900.00	교무금(1명) 오세림
광 고 비	200.00	기부금(1명) Roy Lee
기 부 금	50.00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A. 일반 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미사 참례를 대송으로 대신합니다
 - 노약자 및 임산부, - 65세 이상 어른신중 건강이 염려되는 분
 - 감기,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분, - 기저질환을 치료중이거나 허약하신 분
 - 최근 2주내에 해외나 다른 주(state)를 다녀오신 분
2. 서로 대화할 때에도 사회적 거리(6 feet)를 반드시 유지합니다.
3. 성당 곳곳의 안내문을 잘 따릅니다.
4. 봉사자들의 안내에 잘 협조합니다.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세척 등)
5. 일체의 음료나 음식물을 나누지 않습니다. (필요시 개인용 식수 준비)

B. 미사 참례를 위한 준비

1. 모든 미사의 참석 최대 가능 숫자는 50명 수준입니다.
2. 미사 시간에 늦지 않게(30분전) 오셔서 미사참례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합니다.
3. 성당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여 체온이 화씨 99.6(섭씨 37.5)이상이면 미사참례가 불가합니다.
4.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5. 사회적 거리(6 feet, 2 mt) 유지방침에 따라 표시된 좌석에 앉습니다.

C. 미사 참례를 위한 준수사항

1. 미사 중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 미사 중 모든 응답은 해설자만 대표로 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속으로 응답합니다.
 - 예) (사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응답) 해설자 : 아멘
3. 미사 때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4. 평화의 인사는 접촉 없이 목례로 대신 합니다.
5. 영성체 때 모든 신자들은 사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초대에 다 함께 '아멘'하고 한번만 응답합니다.
 - 그리고 성체를 모시러 나왔을 때에는 따로 응답하지 않고 성체를 모십니다.
6. 성체를 모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를 지킵니다.
7. 신자 분들은 파견 때에 사제가 퇴장을 하여도 자리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8. 봉헌금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미사 후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